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재독한인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

양 영 자

(경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여성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젠더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간호노동자로 이주한 10명의 재독한인여성들과 Schütze(1983)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자료도 그의 분석방법에 의거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는 결혼 이전까지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결혼 이후에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와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즉,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두 경우 모두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했고, 이주 이후의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했는데', 결혼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고 또 강화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성분리적 젠더를 다시 재구성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차이가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를 이해한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노동)이주여성, 이주의 여성화, 젠더, 재독한인여성, 생애사 (연구)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주여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¹⁾ 현상을 논의하는 연구들

* 이 논문은 2012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로 양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 개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상호 연계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지구적 맥락에 따른 거시적 관점에 비중을 둔 연구들(Hochschild, 2000; Sassen, 2000; Parreñas, 2001; Zarembka, 2002; 이수자, 2004; Yeoh and Willis, 2005; 황정미, 2009)은 '글로벌 돌봄 체인(global care chain)'과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 현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주여성들 개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관점에 비중을 둔 연구들(Constable, 2003; Freeman, 2005; Thai, 2005;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김현미, 2006; 이수자, 2006; 이혜경 외, 2006; 김민정, 2007; 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김영옥, 2010; 김현미, 2010; 양영자, 2010; 2011b)은 '에이전시(agency)²⁾'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의 여성화와 관련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따른 논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논의에 내포된 공통점은, 이주의 양상이 '젠더화되고(gendered)' 있는 것, 즉 여성들의 이주가 가사나 육아, 간호 등과 같은 돌봄노동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성별화된 이주로 인해 '젠더관계(gender relations)'도 다양한 층위에서 재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이주의 여성화와 관련한 연구가 이주여성의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이주의 젠더화라는 질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젠더관계에 집중된 논의의 편중성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주의 젠더화와 관련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구성물(soziokulturelles Konstrukt)'로서의 '젠더(gender)'라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섹스(sex)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성을 일컫는 개념으로서, 고정적인 정체성이 아닌 유동적인 정체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과정에 있는 유동적인 정체성으로서의 젠더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 젠더를 분석하는 틀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젠더는 기존의 성을 해체하는 'undoing gender'(Butler, 2004)와 새로운 성을 구성하는 'doing gender'의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유동적인 정체성으로서, 기존의 성을 해체하는 재구성적 측면과 새로운 성을 행하는 구성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주의 젠더화와 관련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젠더화와 관련한 논의가 젠더관계에 집중된 연구의 편중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의 젠더화를 추동하는 주체로서 간호노동자로 이주한 재독한인여성들³⁾을 상정하여, 이들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undoing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1) 이주의 여성화는 국가 간 이주가 남성보다 여성에 의해 더 많이 행해지는 이주여성이 양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포괄하여,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동반이주자(tied mover)'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노동자로서 이동하는 취업이주여성이 증가한 질적인 변화 현상을 아우르는 개념(Parreñas, 2001;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259; 정현주, 2008: 896-897; 2009: 111; 황정미, 2009: 4)이다.
- 2) 에이전시는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주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가들에 의해 재조명된 개념으로서, 구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여 극복해나가는 개인의 협상 및 교섭 능력을 일컫는다(김현미, 2005; 한건수, 2006: 198-200; 박신규, 2008: 52; 정현주, 2009: 110; 양영자, 2011a: 319; 2011b: 143).

gender와 doing gender가 재구성되고 있고 또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젠더의 재구성 과정 및 구성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주 이전과 이후의 생애사를 모두 포괄한 질적 분석이 요구되고, '시간상 연속적으로 자리매김된 집적된 층화'(Schütze, 1983; von Felden, 2003; 양영자, 2009; 2010)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여성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젠더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재독한인여성의 생애사를 사례로 하여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럼으로써 젠더관계에 편중된 이주의 젠더화 관련 연구를 보완하고, 나아가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를 이해한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이주의 젠더화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양분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의 젠더화를 글로벌 돌봄 체인과 생존의 여성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지구적 맥락에서 논의하는 거시적 관점에 비중을 둔 연구들(Hochschild, 2000; Sassen, 2000; Parreñas, 2001; Zarembka, 2002; 이수자, 2004; Yeoh and Willis, 2005; 황정미, 2009)이 있다. Hochschild(2000)는 가사노동이주 여성의 사례를 통해, 산업국가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돌봄 위기(care crisis)' 혹은 '돌봄 결핍(care deficit)'이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글로벌 돌봄 체인 현상이 조장되고 있다고 환기시키며, 여성들 간에 재편되고 있는 젠더관계와 관련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산업국가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증가로 돌봄공동화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돌봄문제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주한 여성들에 의해 해결되는 글로벌 돌봄 체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Sassen(2000)도 '생존회로(survival circuits)'를 통해 이동하는 제 3세계 여성들이 제 1세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존의 여성화 과정에서 여성들 간의 젠더 질서뿐만 아니라 계급과 인종 간 위계질서도 재편되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Parreñas(2001)는 이탈리아나 미국 등으로 이주한 필리핀 가사노동여성들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이들 여성들이 이주를 통해 출신국과 이주국 간 모순된 계급이동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부분적 시민권만을 얻는 반쪽짜리 시민으로 위치지어지고 있으며, 가정적으로는 초국가적 가족

3) 이들은 한국과 독일 간 고용계약에 의해 '초빙노동자(GastarbeiterInnen)'로서 독일로 떠난 '파독간호사'로 불린 노동이주여성들을 말한다. 이러한 파독간호사에 대한 공식적인 모집은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도 민간 주선에 의한 모집이 이루어졌던 바, 이들 노동이주여성들의 수는 총 1만여 명을 넘어섰다(이수자, 2006: 200-20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53; 양영자, 2010: 324). 그리고 이들 중 귀국하거나 유럽이나 북미 등으로 3각 이민(triangle migration)을 떠난 경우는 각각 40%에 달했고, 이들 여성들처럼 독일에 정착한 경우는 20%에 이르렀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46; 양영자, 2010: 324).

연결망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공동체에서도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전반적인 '탈구적 상황(dislocation)'에 처해있는 '글로벌적 하인들(global servants)'이라는 결과를 제시하며, 여성들 간에 재편되고 있는 젠더관계는 물론 가정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젠더관계도 논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Zarembka(2002)도 아프리카와 남미 가사노동이주여성들의 사례를 들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빈곤한 국가들의 여성들을 이주국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젠더관계와 관련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Yeoh and Willis(2005)는 싱가포르 전문직 여성의 사례를 들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계 하 여성들은 제 1세계 전문직 여성이든 제 3세계 가사노동이주여성이든 상관없이 남성들에 비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들 간 및 남녀 간 젠더관계와 관련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제 1세계 전문직 여성들도 자신들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사노동이주여성들이 부채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 전문직 여성들도 가족을 위해 '전통적인' 역할로 회귀하는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억압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이외, 이수자(2004)는 재한이주여성들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이들 여성들이 가부장적 지구화 과정에 편입된 경제적 약자로서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에 수동적으로 편입된 성적 약자로서도 위치 지워지고 있다고 환기시킴으로써, 특히 남녀 간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정미(2009)는 결혼이주가 위치하는 제도적 맥락을 이주의 여성화를 추동하는 전지구적 차원과 가족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와 이주의 여성화가 접합되는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젠더 위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 1세계와 제 3세계 간 국제성별분업 과정에서 재편되고 있는 거시적 차원의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재편되고 있는 젠더관계도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주의 젠더화를 다층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젠더관계에 집중한 연구로써 제 1세계 출신 이주여성들을 글로벌적 희생자로서 자리매김한 경향이 강한 점은, 이주여성들의 행위성을 간과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이주의 젠더화를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여성들 개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미시적 관점에 비중을 둔 연구들(Constable, 2003; Freeman, 2005; Thai, 2005;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김현미, 2006; 이수자, 2006; 이혜경 외, 2006; 김민정, 2007; 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김영옥, 2010; 김현미, 2010; 양영자, 2010; 2011b)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을 사례로 한 것들로서, 이들이 '승격혼(marrying up)'을 하기도 하고 '하향혼(marrying down)'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 교섭해나가는 '행위주체(agent)'라는 점과, 출신국과 이주국 간에 위치한 '제 3의 공간(third space)'(Bhabha, 1990: 211; Kaiser, 2006: 33; 재인용)에서 '차연의 주체성(subjectivity of différance)'(Bhabha, 1994: 나병철 역, 2002: 재인용)⁴⁾을 구축해가고 있는 글로벌적 존재라는 점 등,

4) 차연의 주체성은 탈식민주의 개념으로서 타자와의 차이적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완전한 동일성은 끊임없이 연기시키는 타자성의 주체성을 일컫는다. 그리고 차연은 프랑스 탈구조주의 철학자 데리다(Derrida, 1967)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차이와 지연의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데, 어떤 순간에도 어느 한 쪽만의 의미로는 환원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즉, 차연은 권력을 지닌

행위성과 주체성을 강조한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재배치되고 있는 남녀 간 젠더관계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젠더관계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노동이주여성들의 사례를 분석한 이수자(2006)는, 재독한인여성들이 이주국의 타문화에 대한 관용성으로 주체적인 이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한외국인여성들은 이주여성의 타자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객체화된 이주생활을 하고 있다는 대비되는 결과를 보고하며, 이주국의 관용성에 따라 젠더관계도 다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마찬가지로 이해경 외(2006)도 결혼이주여성들만이 아니라 노동이주여성들에게도 주목한 연구를 통해,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행위주체였고, 이주생활도 친정식구와 초국가적 연결망을 구축하며 주체적으로 영위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가족관계망 속에서 재편되고 있는 젠더관계와 관련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여성들 개개인의 에이전시에 의해 추동되는 미시적 차원의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재편되고 있는 젠더관계도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주의 젠더화를 심층적이고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강조한 결과들은 희생자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거시적 차원의 연구들이 노정한 제한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젠더관계에 집중한 결과를 제시한 점은, 거시적 차원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젠더관계에 집중된 편중성을 보완하는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젠더화에 대한 논의가 젠더관계에 집중된 연구의 편중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의 젠더화를 추동하는 주체로서 간호노동자로 이주한 재독한인여성들을 상정하여, 이들의 노동이주여성들로서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젠더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젠더의 구성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젠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젠더 개념인 바, De Beauvoir와 Butler에 의거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을 추론하고자 한다.

De Beauvoir(1992)가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졌다.”는 명제로써, ‘여성(female)으로 태어남’과 ‘여성(woman)으로 됨’이 서로 다름을 명백히 한 이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서의 젠더는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섹스와는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생물학적 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사실로서의 범주를 일컫는 개념이라면,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이념으로서의 범주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생물학적 성을 결정하는 ‘몸(body)’도 더 이상 자연적으로 주어진 사실적 범주가 아니라, 젠더 권력에 의해 구성된 사회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Butler(1990: Kerner, 2007 재인용)에 의해 해체되었다. 즉, Butler는

한 쪽, 예컨대 남성이나 식민자 혹은 자본 등이 다른 한 쪽, 예컨대 여성이나 피식민자 혹은 노동을 동일화하고자 할 때, 차이의 반작용으로 동일성은 연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인 것이다.

섹스도 이미 구성된 젠더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던 바, 자연적인 범주와 사회문화적인 범주로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Butler는 '젠더 해체하기(undoing gender)'(Butler, 2004)와 '젠더 행하기(doing gender)'를 제시하였는데, 젠더 해체하기는 De Beauvoir의 섹스 개념에 내포된 반본질주의에 주목하여, 섹스의 탈본질화와 탈자연화를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젠더 해체하기는 젠더가 구성되는 장소로서의 몸도 이미 섹스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타자화되어 있는 바, 몸도 더 이상 자연적이고 본질적이 아닌 사회적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생물학적 섹스와 사회문화적 젠더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존재방식은 아니라는 명제가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젠더 행하기는 De Beauvoir의 '여성 되기' 명제에 내재된 수동성과 능동성의 공존 형식에 주목하여, '되기'가 기존의 젠더규범을 재구성하는 수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획(project)'과 '선택하기'의 능동적인 행위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utler는 이러한 젠더의 선택이 완전히 자유로운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문화적 규범들의 교직 안에서의 가능성을 체현하는 방식(Butler, 1986: 37; 김애령, 2010 재인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즉, 젠더를 선택한다는 것은 젠더규범을 새롭게 조직화하여 해석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젠더는 급격한 창조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역사를 자신의 용어로써 새롭게 쓰는 전략적인 기획(Butler, 1986: 41; 김애령, 2010 재인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Butler는 젠더가 결코 고정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점차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 즉 '행동의 양식화된 반복(stylized repetition of acts)'(Butler, 1988: 519; 김애령, 2010 재인용)을 통해 도입된 정체성이라고 하였고, 행위자는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위치 지워지는 바, 행위자 주체의 존재적 독립성은 상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젠더정체성의 '주체(subject)'는 부정된 '비체(object)'로서 존재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인 바, 독립적이고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반복적 수행(performance)을 통해 구성되는데, 그것의 반복 안에서, 그리고 그것의 반복을 통해 균열을 만드는 그 행위의 효과로서 존재한다는 것(Butler, 1990; Kerner, 2007 재인용)이다. 따라서 이는 젠더 개념에 내포된 수동성과 능동성의 양 측면, 즉 재구성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해체(undoing)하고 새롭게 행하는(doing) 측면에도 주목한 분석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젠더 개념에 내포된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재독 한인여성들의 노동이주여성들로서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undoing gender와 doing gender가 재구성되고 있고 또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젠더의 재구성과정 및 구성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노동이주여성들인 재독한인여성들과의 인터뷰는 Schütze(1983: 283-285)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autobiographisch-narratives Interview)' 방법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8월 말까지에 걸친 독일체를 통해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한인남성과 결혼한 여성들과 독일인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을

각각 5명으로 하였는데, 이들 여성들과 실시한 인터뷰 시간은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3시간 20분까지 소요되었다⁵⁾.

이러한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마찬가지로 Schütze(1983: 283-285)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방법에 따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필사 단계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가 섞인 이야기 전체 내용을 웃음과 한숨 등의 표정과 함께 텍스트화하였다. 둘째, 요약 단계에서는 젠더의 구성과정과 관련한 핵심적인 텍스트 내용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생진행의 과정구조(Prozessstrukturen des Lebensablaufs)'(Schütze, 1983; 1984; 2006)에 주목한 요약을 하였다. 셋째, 의미부여 단계에서는 젠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이나 문장들을 찾아내어 범주화하였고, 이어 이러한 범주들과 관련하여 생애사주체가 부여한 주관적인 의미들을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ät)'에 의거하여 재해석하였다. 넷째, 구조화 단계에서는 젠더의 구성과정을 특정 상위 범주들, 예컨대 성중립적 젠더나 성분리적 젠더 등과 같은 범주들에 의거해 구조화하였다⁶⁾. 다섯째, 비교분석 단계에서는 개별사례별로 분석한 앞서의 결과들을 '극소비교의 원칙'과 '극대비교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조시킴으로써, 젠더의 구성과정과 관련된 공통된 혹은 차이가 나는 점들을 도출하였고, 이어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젠더의 구성과정을 구조화하였다. 여섯째, 컨트롤 단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질적 연구자 3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이를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데에 활용하였다.

-
- 5)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 발표된 연구(양영자, 2010)에서 서술했던 바, 여기에서는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최소화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젠더는 기 연구에서 논의한 가치관과 정체성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키워드임도 부연한다.
 - 6) 본 연구에서는 어떤 젠더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며 또 행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형적인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논쟁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분석을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 즉 출신국사회나 이주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진 기존의 젠더규범"을 그대로 수용하여 재구성하는 경향이 강한지, 아니면 거부하고(해체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행하는) 경향이 강한지 그 맥락적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성분업이 강조된 성차별적인 젠더를 재구성하는 수동적인 경향이 강한 경우에는 성분리적 젠더로, 성분업으로부터 탈피하여 기존의 젠더를 해체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젠더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경향이 강한 경우에는 성중립적 젠더로 개념화하여 논의할 것이다.

5. 연구결과

1)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표 1〉 재독한인여성의 일반적 특성

이름	출생연도 (배우자)	인터뷰 시점 및 당시 연령	과도연도 (배우자)	결혼연도 및 상태 (배우자)	학력 및 간호교육 여부	형제 자매	자녀 및 직업	배우자 민 족성 및 생존 여부	(전)직업 (배우자)	퇴직 여부 및 (연도)
강선옥	1946 (1945)	2009, 63	1967	1973, 초혼	고졸, 독일 간호학교졸	1남5녀 중장녀	1남(고교교사) 1녀(간호사)	한인, 생존	간호사(산업노동자, 자영업, 간병인)	퇴직 (2002)
권은자	1947	2009, 62	1967	1999, 재혼	고졸, 독일 간호학교졸	4남2녀	무	독일인, 생존	간호사 (스포츠인)	퇴직 (2008)
김지영	1947	2009, 62	1967 (1977)	1979, 초혼 (재혼)	고졸, 독일 간호학교졸	1남4녀 중막내	1남(회사원)1녀(계녀, 회사원)	한인, 생존	간호사 (산업노동자)	퇴직 (2002)
나영희	1949	2009, 60	1971 (1974)	1977, 초혼 (재혼)	중졸, 간호원 양성소졸	4남3녀 중 넷째 (장녀)	1남(계자, 회사원)1녀(계녀, 방사선기사), 1녀(회사원)	한인, 생존	간호사 (산업노동자, 간병인)	퇴직 (2008)
박은경	1952	2009, 57	1975	1980 (초혼)	간호대졸	2남2녀 중 차녀	1남(고재학) 1녀(변호사)	독일인, 생존	간호사 (의사)	결혼 직후 퇴직 (1981)
라지선	1946 (1945)	2009, 62	1967 (1970)	1970 (초혼)	고졸, 독일 간호 학교졸	무언급	2남(변호사, 회사원) 1녀(회사원)	한인, 생존	간호사 (자영업)	퇴직 (2006)
서미순	1952 (1947)	2009, 57	1973	1976 (초혼)	간호고졸	6형제 중넷째	2남(의사, 대학생)	한인, 생존	간호사 (자영업)	퇴직 (무언급)
이영숙	1946 (1940)	2009, 63	1967	1975 (초혼)	고졸, 독일 간호 학교졸	2남3녀 중장녀	1남 (스포츠매니저)	독일인, 사망(2009)	간호사 (산업노동자)	퇴직 (무언급)
한미자	1951	2009, 58	1974	무언급 (초혼)	간호대졸	2남3녀 중차녀	2녀(대학생)	독일인, 생존	간호사 (공무원)	현직
홍순옥	1947 (1954)	2009, 62	1971	1977 (초혼)	간호대졸	무언급	2남(의사, 회사원)	독일인, 생존	간호사 (대기업간부)	결혼 직후 퇴직 (1982)

본 이주여성들은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⁷⁾, 20대 초반에 독일로 이주하여 짧게는 34년, 길게는 42년간의 이민생활을 한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전·현직 간호사들이다. 이들 중 6명은 일반 고등학교나 간호고등학교를, 3명은 간호대를,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학교를 마친 후 간호원양성소를 졸업한 경우로, 동 코호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다. 또한 이들 여성들

7) 이는 인터뷰를 실시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의 데이터이다.

대부분은 결혼 이후에도 간호사직을 유지함으로써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로, 결혼과 출산으로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는 2명만이 해당된다. 인터뷰 시점인 2009년 당시, 1명만이 현직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기퇴직에 들어간 여성들이다.

2)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본 이주여성들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는 결혼 이전까지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나, 결혼 이후에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와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Prozess des Lebensablaufes)'⁸⁾ 과정에서는 두 경우 모두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했고, 이주 이후의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했는데, 결혼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이주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위치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고 또 강화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성분리적 젠더를 다시 재구성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⁹⁾ 차이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결혼 이전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은 양 유형을 통합하여, 그리고 결혼 이후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은 양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결혼 이전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본 이주여성들의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했고, 이주 이후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 바, 결혼 이전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는 이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①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 성분리적 젠더의 부분적 해체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는 동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전형적인 여성직종에 제한된 취업분야, 그리고 복합적인 이주동기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8) 인생진행 과정은 Schütze(1983)의 '인생진행의 과정구조'라는 개념으로부터 차용된 것이다.

9) 성분리적 젠더의 재구성은 기존의 젠더규범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젠더 개념에 내포된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 중 전자의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수동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후에 제시하게 될 가정전념형 생애사에 재현된 성분리적 젠더의 재구성과 관련한 분석내용은 수동형으로 표현할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위의 문장이나 초록, 결론 등의 일부 문장에서처럼 능동형의 앞 문장과 일치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문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득이 능동형으로 표현할 것임을 부연한다.

첫째, 동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관련한 논의로써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생활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이 고등학교 진학률의 남녀 간 격차가 매우 컸던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¹⁰⁾했거나 대학교까지 졸업한 여성들이라는 점은, 이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러한 고등교육을 뒷받침할만한 수준¹¹⁾에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성차별적 태도가 동 코호트 부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부모의 영향을 받은 이들 여성들 또한 당시를 지배한 성차별적 젠더를 부분적으로는 해체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 대부분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 자발적으로 오빠들이나 남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양보했거나 4년제 일반 대학교가 아닌 2년제 간호대학으로 진학했던 점은, 성차별적인 젠더를 재구성하는 생활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막 (대학교에) 가야한다. 아 보통 형편이 그러면은 못 보내고 그러지만. 어떻게든지 보내준다고 가라고 그래서 간 거지.(박은경)” “그때(여고 다닐 때)는 나 교육자 될라고 그랬지. 교사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저기, 애들이 많고 형제들이 저기 여섯이나 됐었기 때문에. (가정형편상 포기를 했지.) (강선옥)” “제일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중간에 태어나니까. 저는 간호학교 간 게 또 돈이 없어서 갔어요. 위의 언니, 오빠들 공부해야 하니까. 등록금 내야 되니까 그렇고. 밑에, 또 밑에 남동생이니까 대학 가야 된다고 그렇고.(서미순)”

물론 집성촌 출신의 여성이 부농인 부모의 성차별적인 교육태도로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던 4명의 남 형제들과는 달리 중학교교육만을 받는 데에 그쳤던 것은, 성차별적인 젠더를 재구성했음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극대비교의 사례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집성촌을 떠나 도시에서 학업 중인 남 형제들을 위해 무급 가사노동자로 활동했던 시기를 간호원양성소를 졸업하여 보건소 직원으로 취업하는 기회로 활용했던 점은, 성차별적인 부모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재생산 영역에 머물러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유급직 생산 영역으로 진출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극대비교의 사례에서도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0호가, 우리 성씨만 돼야. 아주, 봉건주의 사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저보다 더 앞서 간 언니들은 스무 살, 스물한 살만 되면 시집 다 보내버렸잖아요! 국민학교 탁 졸업시키고 집에다 놔두고, (...) 엄마가 큰 딸이고 또 동네 풍습이 그러니까. 근데 그 때에는 돈이 있어도, 돈이 있

10) 1960년대 중반, 남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각각 65%와 45%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반적인 진학률 상승으로(85%와 60%) 약간 좁혀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고착된 상태(장상수, 2006: 133-135)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1) 이들 중에는 홀로 된 모 밑에서 혹은 부의 사업이 실패하여 고등교육 과정을 어렵게 마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의사였거나, 부가 교장선생님이었거나 공무원이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거나 자영업자였고, 집성촌의 부농이었던 바,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등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

어가지고 딸을 가르킬 자격이 있어도 학교를 안 보냈다, 그 딸이여. (...) (중)학교 졸업한 뒤로는 A12)에서 많이 생활을 했어. A가, 식구가 온 식구가 다 있으니까. 오빠들뿐이 아니라 막내까지 국민학교를, 아버지가 막내아들까지 A로 보내버렸으니까. 저 양성소 다니면서도 그랬고, 보건소에 다니면서도 출장 내놓고 A 나와서 살림 허고(나영희)”

둘째, 전형적인 여성직종에 제한된 취업분야와 관련한 논의로써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생활을 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이 여성들의 취업률이 저조한데다 취업분야도 대부분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당시의 현실¹³⁾ 속에서,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취업분야로서 간호직을 택하여 진출했거나 진출계획을 세웠고, 일부의 여성들이 수녀원생활을 했던 점은, 생산 영역으로 확장된 직업 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해체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전략이 전형적인 여성직종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재구성하는 생활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간호직 진출이 가족경제나 자신들의 교육능력 미흡으로 교사직 진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이루어졌던 점도, 이들이 계획한 직업 분야 모두가 전형적인 여성직종에 해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젠더와 관련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마가 깡나봐. 여자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밥만 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개인 사람인 것 같애. 니가 일반여고를 간다면 적어도 교육대학은 가야, 선생은 되야 앞으로 니가 살 수 있다. 여자도 평생 밥만 해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 그러면서 니가 힘들지만 거기(간호고)를 가면, 졸업만 하면 거기는 100%직업이 된다더라. 또 사실 그렇더라고, 학교 때 막 공부 1등, 1등 한 애들 보니까 다 선생 됐데. 진짜 사실이 그랬어. 그래 뭐 간호학교로 갔조.”(서미순)
 “그때(여고 다닐 때)는 나 교육자 될라고 그랬지. 교사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저기, 애들이 많고 형제들이 저기 여섯이나 됐었기 때문에.(강선옥)” “아버님이 여자는 간호원, 여자는 교사가 돼야 되고, 그렇게 교육열이 강하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남자는 의사가 돼야 되고, 응?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여동생이나 우리 언니 경우에는 교사직을 바로 들어갔고, 사범대학을 들어가갔고 교사직을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제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 제가 세 번을 재수를 했습니다. 간호대, 간호 전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웃음).(한미자)”

셋째, 복합적인 이주동기와 관련한 논의로써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생활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독일이주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집합적인 기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¹⁴⁾ 스로가 갖는

12) 지명이나 인명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호화함을 밝힌다.

1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37%로부터 40%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있었다(임운택, 2006: 125-128).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진출한 분야는 1차 산업이었는데, 1970년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9.7%에나 달했다(김혜경, 2007: 49).

14) 이들 여성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해야 했던 빈곤한 가족 출신의 미혼 여성, 이른바 ‘여공’이 된 동 코호트 여

가족생계에 대한 책임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고, 이외에도 부유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그려졌던 외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동경, 간호대나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독일유학에 대한 기대감, 나아가 독일을 미국이주를 위한 중간기착지로서 활용했거나 미국이주 대신 독일이주를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개인적인 기획¹⁵⁾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주동기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들 여성들이 딸로서의 위치에서 가족생계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당시의 가부장적 젠더규범을 재구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재구성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이러한 젠더규범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기 자신으로서의 위치에서 고유한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한 측면이 더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생활을 보다 강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막내 동생이 사실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아픈 관계로, 우리 아버님이 아픈 관계로 해서, 사실 그 그 애 학비,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왔거든요. (...) 동경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단지 남동생을 갖다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의과대학을. (...) 그리고 사실적으로 교직에, 언니의 경우에는 교직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것도 어 제 개인적인 선택 때문인지도 몰라요. 사실 형제가 그렇게 있었어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뭔가 제가 이거를 꼭 가야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이거 책임을 지고.(한미자)” “나는 대학을 가도 되는 건데. 나는 천방지축인데. 그냥 외국, 외국 얼마나 그 당시. 알프스 소녀, 뭐 얼마나 환상적이지. 유럽 뭐 얼마나. 그 뭐 신부님이 하시는 간호 학생 모집한다 하니까 우리는 간호 대학인줄 알고 왔지.(김지영)” “국립의료원에 의료하고 있었는데. 하야간 그때 간호원들이 외국 가는 게 아주 그냥 붐이었어요. 한 팀은 미국 가는 거? (...) 나라도 인제 학교졸업해 가지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왜 이, 또 외국이라는 데가 아주 동경의 대상이고.(서미순)” “간호대학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 되는 외국으로 갈 생각을 했었다고. (...) 미국으로 많이 나가고. (...) 미국을 직접 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미국 가려면 다 돈이, 자기 돈이 필요하더라고. 우선 비행기 표 있어야지. 처음에 있으려면, 가서 거기 가서 있으려면 또 거기 가서 간호사시험을 봐야 한다고. 미국자격증을 또 시험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있을, 먹고 살 돈도 있어야 되잖아. (...) 내 생각에는 우선 독일까지 가면은 비행기 값, 그 비행기가 나왔잖아. 돈 안 해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우선 독일로 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야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박은경)”

이와 같이, 동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전형적인 여성직종에 제한된 취업분야, 그리고 복합적인 이주동기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성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진양명숙, 2007: 450-453)와는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 즉, 이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생계의 책임을 딸들에게 전가해야 할 만큼 빈곤한 수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5) 독일이주는 당시 붐이었던 미국이주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도 비용절감적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독일로 이주한 이들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젠더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② 이주 이후 결혼 이전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 성중립적 젠더의 부분적 구성

독일로 이주한 이후 결혼 이전까지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는 직업생활에의 적응능력과 직업정체성, 그리고 간호노동자 이외의 다중적 역할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직업생활에의 적응능력과 직업정체성과 관련한 논의로써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한 생활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주국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간호노동 현장에서 활용해야 했던 초기의 이주 상황에서, 소통의 문제를 성실성과 용기, 친절성으로써 극복해나갔던 점은, 이들 여성들이 종사한 간호직이 전형적인 여성직이었음을 의미하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재구성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직업정체성으로써 생산 영역에서의 활동을 수행해나갔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행한 생활을 보다 강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언어지장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언어 지장이 있으니까. 이 독일 애들보다 몇 곱 더 저기 공부를 더 해야 했죠.(권은자)” “난 근데 언어 어려웠던 거는 몰라. 별로 생각 안 나. 물론 처음부터는 힘들었지만, 크게 언어 때문에 일할 때 막 불편하고 굉장히 막 힘들고, 그런... (...) 젊은 나이에 와서 그런 것 같애.(김지영)” “(한국 간호사가 인정을 받은) 이유는 첫째루 성실했고, 많은 분들이 성실한 면이 있었고.(한미자)” “내가 참 잘 웃었어.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 그럼 그냥 웃는 거야. 뭐 웃고.(홍순옥)”

또한 출신국과 이주국 간 간호교육 시스템과 간호사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¹⁶⁾로 인해 직면했던 초기의 직업정체성과 관련한 갈등도, 출신국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간호지식이나 기술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거나 전인적 간호를 새롭게 습득·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극복해 나갔던 점은, 갈등적 상황도 생산 영역에서의 직업적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를 재구성한 생활도 하였지만 성중립적 젠더를 행한 생활을 보다 강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간호원들이 뭐 Visite¹⁷⁾(내방)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저 뭐야 Blut abnehmen (채혈) 하고? 주사를 논다든지, 보호자들이 많이 와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환자들 씻기는 거,

16) 당시 독일의 간호사교육은 3년 과정의 직업교육으로 이루어졌던 바, 간호직의 사회적 위치는 대학 교육을 전제로 한 타 직종의 그것에 비해 낮았는데, 이러한 직업교육 시스템은 간호교육의 대학교육 불필요성 논리에 따라 오늘날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17) 이주생활의 실재성(Realität)을 확보하기 위해 언어사용 방식을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던 바, 본 인터뷰에서는 이주자의 특성상 모국어와 이주국어를 혼용한 구술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그러는 거 간호원들이 안하고, 그 다음에 Bett machen(침대 정리) 이런 것도 간호원들이 안하고 한국에서는. (...) 근데 여기 독일 간호원생활은 그게 아니라고. Bett machen하고 Nachtkästchen sabubermachen(사물함 정리) 하고, 한국에서 안하는 일을 갖다가 여기 오면 다 하잖아. 그러니까 간호원이 아니라 내가 꼭 식모 같다? 처음에는 그렇잖아. 청소하는 사람 같고, (...) 처음에 말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일도 좀 할 수가 없겠지. 못했지. 인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할 수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Uniklinik(대학병원)에서 근무 할 때는 그런 일이 좀 많았다고. Röntgen(방사선) 하라고 한다 해서 금방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의사가 쓰면은 그걸 써야 하잖아. 그리고 또 보내야 하잖아.(박은정) “첫째루 성실했고, 많은 분들이 성실한 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신체적으로 어, 아픈 사람을 갖다가 치료하기에는 정신적인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모든 문화하고 습관하고 그거를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는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책임 있는 간호원은 못됐어요, 책임 있는 간호원, 수간호원이나. (...)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한미자)”

따라서 이들 여성들 중 일부는 독일과 유럽 여행을 통해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나갔고, 이른바 결혼적령기¹⁸⁾를 넘어선 때의 간호노동자 생활도 당당하게 유지해 나갔던 점은, 딸로서가 아니라 자기로서의 위치에서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했음을 의미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기대된 ‘적기’에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주노동생활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보다 광범위하게 행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학 내내 집에, (독일) 에들은 집에 가는데, 나는 어딘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갔지. 또 내 친구하고는 Paris(파리) 여행도 가고, 여행 많이 갔어, 나는, 유럽 여행 그 당시 많이 갔어. (...) 빨리 결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특히 여기 외국이니까, 나는, 난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 나 일 재밌게 했어요, 진짜로, 참 재밌게 일했어, 진짜로.(김지영)”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노동이주여성의 위치에서 귀국 시점은 결혼 시점이라는 등식을 염두에 두고 간호노동자 생활을 계획하고 유지해나갔던 점은, 생산 영역에서의 활동을 결혼 시점까지로 제한시켜 상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인 수준에서만 행하는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는 또 인제 있다가 보니까 또 어쨌든 한국가고 싶잖아? 가고 싶은데 한국 돈을, 이것저것 살림 살이 해 간다는데, 돈이 없으면 만약에 남자가. 그러잖아? 자존심이 있잖아? 그니까 내가 저기 해야 되겠더라고, 돈을, 결혼을 한다면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박은정)” “일단 그래갔고(송금을 다 해버려

18) 이들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재혼한 1명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만 30세와 29세, 28세와 27세, 24세와 23세인 경우가 각각 2명과 1명씩으로, 당시 24세였던 동 코호트 여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최순, 1983: 32)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서) 인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에 가서 시집을 갈라보면 돈이 없잖아요. 목돈이. 그래서 인자 내가 1년을 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을 연장 했어(나영희).”

둘째, 간호노동자 이외의 간호학교 학생, 의대지원자, 가족생계부양자로서의 다중적 역할과 관련한 논의로써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한 생활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주국의 '간호 위기 (nurse crisis)'¹⁹⁾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여성직에 종사한 간호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생활이 경과함에 따라 축적하게 된 전문성과 외국어 소통능력을 발휘하며 유능하게 수행해 나갔던 점은, 강한 직업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직업생활을 유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이주국에서 제공한 어학과정이나 간호학교에서 습득한 언어능력이나 간호지식을 간호노동에 제한시켜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대지원에도 활용했던 점도, 의료계의 전형적인 여성직으로서의 간호직을 탈피하여 전형적인 남성직으로서의 의사직에 진출할 계획을 세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행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대진학 계획이 가족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재구성한 생활도 여전히 존속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Studieren(대학공부)을 해볼까. 그래가지고는 München(뮌헨)에 저기 Uni.(대학교)에 가가지고 물어봤다고. 내가 그 당시에 그랬거든. 꿈이 아이구 간호, 의대를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 엄마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쫓 (송금한) 돈을 빌려 줬다나? 그러는데.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린 거 있지. 우리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아. 왜그냐면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남동생도, 우리 집도 그렇지.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냥 저기하자. 다시 여기서 있으면서 공부를 하자.(박은경)” “한국에서는 돈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내 힘으로 의사 공부하고, 간호원 공부하고 다 하고, 한국에 나와서 내가 떳떳하게 살고 싶었는데.(이영숙)”

아울러 이들 대부분이 노동이주이자 딸의 위치에서 송금을 통해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했던 점은, 생존의 여성화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재구성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송금이 양 국을 넘나드는 노동이주자로서의 위치에서, 통화가치나 임금가치의 양 국 간 차이를 활용한 재테크 일환으로 가족의 빈곤 정도와는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다는 점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넘어 원가족의 경제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기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중립적

19) 이주국인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노동력이 생산직 분야에 집중되면서 간호직 분야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는 간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이수자, 2006: 201; 양영자, 2010: 324). 이에, 독일은 이러한 간호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외국 인력을 통해 해결하였던 바, '글로벌 간호 체인(global nurse chain)'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젠더를 행한 생활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70마르크 중) 25마르크 정도 생활비로 남겨놓고, 또 매달은 그래 안했지만은 그 돈을 전부 다 아버지 앞으로 내가 송금을 했어. (...) 내 freiwillig(자발적으로) 한 것이야.(나영희)” “매달은 아니고 이제 하이튼 보냈지. 그리고 Uniklinik(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인제 한번 한꺼번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니까 나한테 모여진 건 없잖아.(박은경)” “다행히 저가 안 별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까지는 (가난) 안 했고, 뭐 그냥 저는 제 별면 됐는데. (...) 그때가 한 몇 십년 공무원 아버지 월급의 여덟 배 정도 됐어요. (...) 한국에 많이 보내는 게 서로 다 자랑이었어요.(서미순)” “그 2/3는 보냈어요. 여기 있는 간호원들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한미자)” “나 생활비만 남기고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400만원이면 큰돈이었다구. 여기서도 큰돈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돈 가치가 없지만 한국에서 제일 큰돈이었어. 그러니까 1년 월급 다 모아갖고 한국으로 다 보냈어. 한국에다가 B에다가 내가 어.. 내가 쪼끄만 집을 하나 사줬구나. 가게 있고, 우리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이영숙)”

이와 같이, 직업생활에의 적응능력과 직업정체성, 간호노동자 이외의 다중적 역할과 관련한 논의로써, 독일로 이주한 이후 결혼 이전까지의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한 생활을 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이후의 생애사에서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와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에 따라, 젠더의 구성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전자와 후자로 나누어 젠더의 구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결혼 이후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결혼 이후의 생애사에서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에는 노동이주여성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위치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켰고 또 강화시키고 있는 반면, 결혼 이후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성분리적 젠더를 재구성하였고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결혼 이후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는 양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① 직업과 가정 양립형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직업과 가정 양립형 생애사는 조기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이주여성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위치에서 이루어진 인생진행 과정,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인생진행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양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켰고 또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직업과 가정 양립형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은 조기퇴직 이전과 이후의 인생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가. 조기퇴직 이전의 노동이주여성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 성중립적 젠더의 강화

조기퇴직 이전의 노동이주여성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는 직업정체

성과 가정경제적 상황, 그리고 다양한 자녀돌봄 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직업정체성과 가정경제적 상황과 관련한 논의로서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키는 생활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귀국하여 결혼할 때까지로 한정된 이들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시간제한적인 직업생활이 결혼 이후에도 가정을 양립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던 점은, 이들 여성들의 직업정체성이 이주생활 과정에서 시간제한성을 탈피한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직업생활을 '자기성(selfhood)'²⁰⁾을 정립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키는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생활의 지속적인 유지는 이외에도 남편들의 불안정적인 고용상황²¹⁾도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계노동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지만 성분업에서 탈피한 2인부양자 모델을 실제에 적용한 생활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키는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자녀돌봄 전략과 관련한 논의로서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키는 생활을 했음을 추적할 수 있다. 이들 여성들이 자녀의 성장 시기에 따라 자신들의 근무 조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취하며, 가정과 직업을 지속적으로 양립해 나갔던 반면, 남편들은 퇴근 후 시간을 자녀돌봄에 활용하는 보조적인 수준에서만 분담했던 점은, 성중립적 젠더를 전반적으로 강화시켜왔으나 성분리적 젠더도 여전히 재구성한 측면도 존속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여성들이 전일제 주간근무를 전일제 야간근무로 변경하거나, 전일제 야간근무도 1/2일제나 1/4일제로 조절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전략을 취하기도 했고, 이러한 전략으로써도 자녀돌봄을 직업생활과 양립하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한 기간 자녀를 다른 가정에 맡겨 키우는 '위탁가정(Pflegefamilie)' 제도 등 이주국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복지 차원의 전략도 동원하기도 했으며, 남편이나 시모 혹은 첫 자녀를 돌봄에 투입하는 가족적 차원의 전략을 취하기도 했고, 이 모든 전략을 통해서도 양립이 어려운 때에는 몇 년간의 휴식을 거쳐 재취업하는 전략도 취하는 등, 다양한 돌봄전략으로써 가정과 직업을 지속적으로 양립해 나갔던 점은, 자녀돌봄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서도 생산 영역에의 참여를 철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들은 자녀돌봄 책임을 보조자 수준에서 분담하는 데에 그쳤던 점은, 이들 여성들이 자녀돌봄을 여성의 일로 간주하는 기존의 젠더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직업생활을 '모성성(maternality)'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유지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도 여전히 재구성한 생활도 존속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 Ricoeur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동일성(sameness)과 자기성을 구분하였다. 동일성이 무시간적 정체성이라면 자기성은 시간성, 즉 역사성을 포함한 내러티브적 정체성으로서, 타자들과의 교차 속에서 구성된다고 하였다(최민식, 2011).

21) 결혼 초기, 이들의 남편들은 한국인인 경우에는 과독광부 출신으로 산업노동자나 자영업자로 전업했거나 전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고, 독일인인 경우에는 산업노동자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편들은 불안정적인 경제상태에 있었던 바, 이들의 2인부양자 모델의 적용은 가족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로원이 왜 조건이 좋으면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양로원, 옛날에는 덜 조금, 힘이 덜 들었어. 환자들도 얼마 없었고, 여기 Stadt(시)에 eigener Altenheim(시립 양로원)이 있어갖고, 조건이 좋아서 밤번만 했어. 왜냐면은 밤 근무하면은, 1주 일하고 1주일 놓고, 그럼 살림하기도 좋지. (...) 얘기가 2살 때부터 얘기가 클 때까지, 거의 한 12살 때까지.(이영숙)” “이 병원이 제 생활에서, 오히려 가정보다도 Beruf(직장)가 더 중요했죠. (...) 애를 배우 노니까 그런 저기는 없더구만요, 그런 게 잡자기 사그라지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는 가정이고, 애를 키워야 되겠다, 고된 식으로 변해져요. (...) C Krankenhaus(병원)라고 D에서 큰 병원이었어요, 글로 떨어져갖고서는 거기가 제 생활의 전부였어요, 근데 애를 배자마자 그거 모성애라는 게 그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 당장 (집에서 가까운) 딴 병원으로 옮기자 해갖구선 E Krankenhaus로 옮겨버리고, 그 당시에 인제 그러구나서는 제가 reduzieren을 했죠(줄였죠), 50%로.(한미자)” “그러니까 애 봐주는 사람 데려가 줬지. 애 맬렸지, 미안해. 그게 난 맘에 걸려. 안 좋아. (...) OP-Dienst(수술실 근무)는 그게 좋은 게, 8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한다고. (...) F(아들)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야간근무 갔지, Nachtdienst(야간근무)는 밤에는 우리 아빠가 있지, 자니까. 그리고 야간근무하면서 낮에는 내가 봐주잖아. (...) Gymnasium(고등학교) 다닐 때까지.(김지영)” “Mutterschutz(출산휴가) 끝나서 저, 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때는 그 Pflegemutter(위탁모)를 줬었어요. (...) 처음에 인제 둘이 막 교대로 밤번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이걸 뭐 사람이 다 죽겠어. (...) 자기(위탁모)도 옛날에 직장을 가졌지만, 애기 낳고 나서는 애기를 둔 즉시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지금은 시간이 나니까 남의 애기를 봐주지만, 나중에 당신은 굉장히 후회할거라는 거야.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말이 옛날에는 안 들어오더라고, 나는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할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두 번째는 아유 딱 일을 그만 뒀버렸어. 애를 내가 키운다고²²⁾.(서미순)” “밤에는 인제 저기 아빠가 애를 다 셋 인제 애를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고 이럴 때는 큰애가 아빠 노릇 비슷하게 동생들 둘을 좀 보살피고 했었어요.(라지선)”

반면, 직업과 가정 양립 생활의 또 다른 주요 변수인 가사노동은 자녀돌봄과는 달리 부차화되고 있는데, 이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자녀돌봄의 그것에 비해 덜 인식된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시켜 주는 노동절감적이고 시간절감적인 이주국의 식문화²³⁾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여성들의 생활도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직업정체성과 가정경제적 상황, 그리고 다양한 자녀돌봄 전략과 관련한 논의로써, 조기 퇴직 이전의 노동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강화시키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조기퇴직 이후의 인생진행

22) 서미순은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여성들 중 M자형 취업곡선을 보이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 여성은 첫아들을 위탁모에게 맡긴 “최책감”으로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7년간의 휴직을 통해 직접 양육을 했고, 이어 다시 간호사로서 재취업했던 경우이다.

23)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은 ‘찬 음식(kaltes Essen)’이라 하여 식사 전 더 이상 추가적인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음식으로, 점심은 ‘따뜻한 음식(warmes Essen)’이라 하여 식사 전에 가열이 요구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국의 노동절감적이고 시간절감적인 식문화가 가사노동의 부차화와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의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과정에서는, 어떠한 젠더가 구성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조기퇴직 이후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의 지속적 유지

조기퇴직²⁴⁾ 이후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는 빈둥지 증후군과 갱년기 증상에 대한 대처방식, 조기퇴직자로서의 자기성찰 방식,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 그리고 후기노년기 생활계획과 관련한 논의로써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조기퇴직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경험한 빈둥지 증후군과 갱년기 증상에 대한 대처방식과 관련한 논의로써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했음을 도출할 수 있다. 빈둥지 증후군과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 50세 전후에, 모성정체성이나 여성정체성에 고착되기보다는, 모성성과 '여성성(femininity)', 자기성이 접합된 혼성정체성을 구축해나갔던 점은, 각 정체성 사이의 차이적 관계 속에서 차연의 주체성을 구성해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애들이 와도, 반가운데, 가면 froh(기뻐)야. (...) 애가 Gymnasium(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갔을 때(따로 나가 살았을 때), (...) 마음이 아프더라고. 맘이 아파. 밤에 개들 방 지나가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집에 온다 그러면은, 가면, Nee(No)! 가면 ‘Gott sei dank!(다행이야)야.(김지영)’ “맨날 Nein(no)! 하니깐 한번은 내가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니까. 애들이 자꾸 돈도 달라 하고, 옷도 사 달라 하고, 뭐 옷도 사 달라 하고, 그래야, 좀 막 부모를 졸라야, 좀 뭐가 좀 부모 같은, 뭔가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뭐든지 해준다 해도 ‘Nein! Ich habe selber genug Geld.(아니요, 주실 필요 없어요, 돈 충분히 있어요,)’ 엄마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 근데 애들 이야기 들으니까, 다들(다른 친구들도) selber(스스로)로 해결한다고 하더라고. (...)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가 상당히 우울증을 앓았어요. (...) 특히 첫째 딸에서 나타나는 Syndrom(증후군)이다. 뭔가 내가 다 해야 되는, 내가 뭔가, 뭔가 도움이, 주위에 도움이 돼야 되는 증후군, 그런 Syndrom이래요. (...) 항상 그렇게 내 주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항상 가르키는 게, 당신은 조금 당신의 Nein(no) 하는 걸 배우래요. (...) 지금은 내 모토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서미순)”

또한 가족의 영역을 벗어난 이주국사회에서도 동일성의 정체성보다는 이주국사회구성원들과의 차이적 관계성 속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차연의 주체성을 구축했던 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국적) 갖고 저,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단지 이렇게 살다보니까는, 또 나름대로의 편리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실적으로 말해서 독일은 제 2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독일에서 살

24) 이들은 현직에 있는 55세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55세와 61세 사이에 정년(62세)이 되기 전에 조기퇴직을 한 여성들이다.

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 뿌리는 한국이지만은 제 원천지는 지금 여기잖아요, 제 2의 고향이기 때문에.(한미자)“

둘째, 조기퇴직자로서의 자기성찰 방식과 관련한 분석을 통해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들 여성들이 60세 전후인 자신들을 이주국의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안정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예비연금생활자로서 규정하며, 이러한 ‘사회보장이 된 노년기(sozial gesicherte Altersphase)’를 가능케 한 자신들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직업생활에, 가정에만 전념한 비이주여성의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에 비해 우위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 자기 자신과 어머니, 아내로서의 다중적 역할이 요구된 이주국에서의 노동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어머니와 아내 위주의 역할이 요구된 출신국에서의 비이주여성으로서의 삶에 비해 우위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언니들 보면 둘이 다 직장생활 (안 하고), 전형적인 가정주부로 살았잖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좀 편해서 좋겠다 싶지만은, Nee(No)!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내 생활 내가 잘 했다 싶어. 당연하지! 안 그래요? 응? 나는 양 쪽을 다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감사하는 것 밖에 없어. 나는 직장생활 했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편안하게. (...) 또 Rente(연금)에,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1년, 뭐 한 달 다 쓰면 또 나와, 다 쓰고 나면 또 나와, 또 나와, 죽을 때까지 다 나와, 감사해야지.(김지영)“

셋째, 조기퇴직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와 관련한 분석을 통해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조기퇴직 이전과는 달리, 퇴직 이후에는 여가의 비중이 증가한 퇴직기 특성상 가사노동이 중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편들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도 이전보다 높아진 점은, 이들이 남편들과 더불어 성고정적인 역할로부터 보다 벗어난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전에 시내를 갔다. 12시 넘어서 이제 막 배가 고프는데 들어와 가지고, (...) 빨리 뭘 해도 국수 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이거를 개발했으니, 소면만 삶(으면), 10분 내로 해결 돼. 삶으면은 냉장고에 우유(두유)는 있고, 혹 따라서 소금 행구면 되는 거지. 근게 내가 배가 더 많이 고프니까 내가 뭐 빨리 하지요, 왜냐면 여자들은 와도 옷 갈아입어야지, 옷 갈아입고 끝나는 시간에 나는 벌써 국수가 다. 응?(김지영 남편)“ “옛날 안 했지, Rente(연금) 들어가고부터, 시간 있으니까.(김지영)“ “요리는 안 해요, 제가 요리는 하구, 무슨 청소한대든가 아니면 무슨 설거지 하는 거 항상 도와줘요.(권은자)“ “Kochen(요리)은 잘 안 해, 설거진 잘해, 설거지. (...) 대리미질은 안 해, 빨래두 안 해, 갖다가 벗어놓기만 했지, 그런 거는 안 해고, 널지도, 널지도 안 해, 이상하지? Fensterputzen(유리창청소), 닦는 거는 잘해.(이영숙)“

넷째, 후기노년기에 대한 계획과 관련한 분석을 통해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의 주관심이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형성하는 데에 있고, 부차적인 관심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생활에 있다는 점은, 모성성이나 여성성에 고착된 정체성보다는 모성성과 여성성, 자기성 사이의 차이적 관계성 속에서 차연의 주체성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는 취미 생활을 해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취미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요가를 배웠어, 한 25년 넘게. 내가 또 그림을 그려. (...) 1주일에 한 번씩, 우리 또 (독일) 친구들이 또 나가서 walking하고.(강선옥)” “그림도 그리러 가고, 요가도 하고 뭐 수영도 가끔 1주일에 한 두세 번. 그래도 수영도 가고, 산책도 좀 하고, 뭐 볼 일, 시내 볼 일, 시장보고, 만날 사람도 좀 만나고, 초대할 사람 하고, 이리다 보면은, 또 여행도 좀 자주는 아니지만 우린 예전부터 갔다 왔잖아. 이제 어학코스 할라고, Englisch(영어). 그래야 여행도 좀 하지.(김지영)”

이와 같이, 빈둥지 증후군과 갱년기 증상에 대한 대처방식, 조기퇴직자로서의 자기성찰 방식,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 그리고 후기노년기 생활계획과 관련한 논의로써, 조기퇴직 이후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강화된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젠더와는 차이를 보이는 가정전념형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젠더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② 가정전념형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가정전념형 생애사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남편의 조기퇴직²⁵⁾을 기준으로,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퇴직 이전의 인생진행 과정과 퇴직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양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분리적 젠더가 재구성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에, 가정전념형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은 남편의 조기퇴직 이전과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가. 남편의 조기퇴직 이전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 성분리적 젠더의 재구성 및 이의 심화

남편의 조기퇴직 이전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는 퇴직이 이루어진 맥락 및 남편과 자녀 집중적 가정생활과 관련한 논의로써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퇴직이 이루어진 맥락에 대한 논의로써 성분리적 젠더가 재구성된 생활을 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퇴직 시점을 결정할 때 남편의 직업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25) 이하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남편의 조기퇴직을 편의상 모두 남편의 조기퇴직으로 칭한다.

여²⁶⁾ 1인부양자 모델을 선택했던 점은, 자기 자신이 중심인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직업생활이 자녀와 남편이 중심인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가정생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가 재구성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하고 우리 아들 낳을 때쯤 되가지고 (일을 그만 두었지). (...) 처음에 나는 애 낳아가지고 바쁘기, 그러기 때문에. 그 일, 일하고 싶은 생각은 그때 없더라고.(박은경).” “결혼하고 1년 뒤에 또 Schottland(스코틀랜드) 갔다고. 1년을 가면 내가 일을 그만 뒀야 되잖아. 같이 따라 갈래면은. 근데 대학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내가 따라가서 놀 정도는 안 되더라고. (..) 미국을 이제 박사학위 끝나고 그때는 우리 큰애가. 세살 때야. 애가 인제 삼, 세살 반인가 그때. 포닥으로, Postdoc이라 그러지. 그걸로 우리가 미국을 갔어요. (...) 일리노이 대학에 이제 가면서 그것도 장학금, 장학생으로 뽑혀서 갔어. 가면서 우리끼리 다 초대를 했어. 다 부담 했어. 그래갖고 1년 가서 있다가.(홍순옥)”

둘째, 남편과 자녀 집중적 가정생활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성분리적 젠더가 심화된 생활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가정에 전념한 이후 주 관심사가 된 자녀돌봄과 자녀교육 그리고 식생활의 책임이 이들에 의해 수행된 반면, 그 수행방향은 남편들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은, 전형적인 성고정적인 분업이 이들의 가정생활을 특징짓는 점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가 더욱 심화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요 가정생활 방식인 독일식 요리법과 예절법에 따른 식생활, 자녀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양육과 교육 등은 독일인 남편들의 제안이나 권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가 더욱 심화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국의 배우자는 멘토로, 이주자인 배우자는 멘티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초기의 국제결혼 구도 자체도 불균등한 성분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가 더욱 심화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식 지금 대부분 짹짹하잖아. 그것은 우리 아빠 혈압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하면 안됐지.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하던지. (...) 우리는 애가 먹기 싫다 그러면은, 먹지 말라고 그냥 두잖아. 근데 여기 사람은 안 그렇잖아. Teller(접시)에 딱 있으면은, 그거 그냥 먹으라고 그러잖아 외국 사람들은. 그 대신 자기네들이 먹을 만큼 갖다놓고 다 먹지. 냉겨 놓고 이런 법이 없잖아. (...) 한국말 안 했다고 왜 안 했는 줄 알어? 처음에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아 독일 말 배우기 전에 자꾸 혼돈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독일 말을 우선 하는 게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말을 안 하고 독일 말 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애들 인제 학교 다닐 때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 (...) G(큰딸)도 처음에 Flügel(피아노) 배웠다가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안 간다.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만뒀지.(박은경)” “우리 아빠가 이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 데는 거를 이 사람이 며

26) 가정전념형 생애사에 해당되는 한 여성은 독일인 의사와 결혼한 경우로 첫아이를 출산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 여성은 연하의 독일인 대학생과 결혼한 경우로 남편이 경제적 자립을 확보한 박사후 과정에 진입해 있었던 시기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퇴직하였다.

리에 알고 있는 거야. 그런게네 자기가 못 알아들어도 내가 한국말로 하라 이거야. H(큰아들)하고, (...) 주위에서 돈으로 교육시킨 애는 잘된 애를 난 못 봤어. 어? 돈을 많이 주고, (...) 요거 이상은 낭비니까, 그 이상의 거를 니가 원할 때는 니가 벌어서 해라. 영? 그랬어.(홍순옥)”

이와 같이, 퇴직이 이루어진 맥락 및 남편과 자녀집중적 가정생활과 관련한 논의로써, 남편의 조기 퇴직 이전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분리적 젠더가 재구성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심화된 성분리적 젠더가 남편의 조기퇴직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남편의 조기퇴직 이후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 성분리적 젠더의 고착화

남편의 조기퇴직 이후의, 혹은 조기퇴직이 예정된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는 1인부양자 모델에 따른 노후생활 및 현 전기노년기의 일상생활과 후기노년기 생활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인부양자 모델에 따른 노후생활과 관련한 논의로써 성분리적 젠더가 더욱 고착화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남편의 연금과 재산에 의존한 이들의 노후생활이, 1인부양자 모델에 따라 가사활동에 전념한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가사담당자 역할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한 남편을 통한 비공식적 인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아빠 Rente를(연금생활로) 빨리 갔어. 50살 조금 넘어서 갔으니까. 통일 되면서 독일이 군인을 줄여야 됐었어. 줄이라 그랬어. 인제 그제 저기 협상이었어. 군인을 줄이니까 병원도 줄여야 되잖아, 같이. 그니까 여기 문 닫게 된 거였지. (...) 우리 아빠는 원래는 자기가 62세까지 일할 생각은 안 했다고. 그 전에 인제 그만 할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 잘 됐구나 하고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만 한다. 신청을 했었지. (...) 우리가 집을 하나 받았지. 거기 Stuttgart(슈투트가르트) 옆에 있는 집을 받았지.(박은경)” “독일에 요즘 법이 바뀌어. 남자들은 65살까지 일을 해야 되데. 근데 이제 자기는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인제 나를 봐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이제 주말부부 되, 하니까 일찍 그만두겠다 이거지. (...) 자기는 이제 저금해 난 돈으로 까먹고. Rente는 65세 나오지만은.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돈은 우리가 집도 있고, (...)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Rente 나올 때까지. 예를 들자면 저기에서 나오는 인제 Miete(집세)라던지, 그건 하나의 Zusatzrente(추가연금)라 이거야.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이거지.(홍순옥)”

둘째, 현 전기노년기의 일상생활과 후기노년기의 생활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성분리적 젠더가 더욱 고착화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남편의 연금과 재산에 의존한 현 전기노년기가

남편과 자녀에게 집중된 생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기노년기도 남편과 자녀는 물론 손자녀에게까지 집중된 생활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은, 이들 여성들의 현 전기노년기가 모성성과 여성성이 중심인 가정 집중적 생활이 되고 있는데, 후기노년기도 지속적으로 그러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점이라는 관점에서, 성분리적 젠더가 고착화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생활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집이 크니까 집 줄이고 정원도 너무 크니까 줄이고 그렇게 하고, (...) Enkelkinder(손자) 낳으면 봐주고, 근방에 산다면은, 우리 G(큰딸)가 berufstätig(직장생활)된다, 또 계속 한다 그러면은, 어쩌다 지가 필요한 대로 난 봐주는 거지 뭐, 우리 아빠하고 둘이 뭐.(박은경)” “큰애는 나한테서 이제 떠나도, 애(장애자녀)는 내가 항상 같이 있잖아. 늙어도 같이, 그 저 이제 내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늙어서 죽을 텐데, (...) 내가 behindert(장애가 있는) 애가 있으니까, (...) I(장애인 둘째아들)가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갔으면은 하는, 내 마음이야.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홍순옥)”

이와 같이, 1인부양자 모델에 따른 노후생활, 전기노년기의 일상생활, 그리고 후기노년기 생활계획에 대한 논의로써, 남편의 조기퇴직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분리적 젠더가 재구성된 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생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6. 결론

이로써, 본 이주여성들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는 결혼 이전까지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결혼 이후에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와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즉, 이주 이전의 여학생이나 노동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두 경우 모두 성분리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해체했고, 이주 이후의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된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했는데, 결혼 이후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주여성으로 전환이주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위치에서 성중립적 젠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고 또 강화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된 단일한 위치에서 성분리적 젠더를 다시 재구성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를 이해한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에 대한 분리적 이해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생애사가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생애사와 접합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주여성들을 이주 시점에서 규정한 사회적 범주로써 노동이주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기존의 이분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으로부터,

두 범주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통합적 관점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월경(越境)한다 할지라도 이주국에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위해 월경한다 할지라도 취업을 하기도 하는, 노동이주와 결혼이주가 복잡하게 연계된 이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환기시키고 있는 점인 바,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에 대한 분리적 이해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은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 집중된 우리의 다문화복지실천에는, 주 클라이언트인 이들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생애사가 이주생활을 거치면서 본 사례들과는 정 반대로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생애사와 접합될²⁷⁾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통합적 이해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은 매우 시급히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둘째, 이주 이전과 이후를 포괄한 주요 인생진행 과정에 재현된 젠더의 차이를 이해한 젠더 인지적 사회복지실천(Gendersensitive Sozialarbeit)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주 이전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분리적 젠더를 해체한 것으로 재현되었는데, 이는 이주의 여성화를 기존의 젠더규범에 의해 희생된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 생존의 여성화 현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규범을 해체한 주체적인 측면도 고려된 이주의 젠더화 현상으로서 보다 폭 넓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재독한인여성들도 기존의 젠더규범에 의해 외화별이를 위해 빈곤한 가족과 국가에 의해 송출된 희생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 이주를 결정하고 이주생활 또한 능동적으로 구축해온 기존의 젠더규범을 해체한 주체적 행위자로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다문화복지실천에는, 결혼이주여성들에 집중된 관심(문경희, 2006; 윤인진, 2008; 이용재, 2010; 최종렬, 2010)을 노동이주여성들에게 보다 확대시켜야 함을, 그리고 이들 결혼이주여성들과 노동이주여성들 모두를 포괄하는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젠더규범에 희생된 부정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이를 해체한 행위자적 존재로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주 이후 결혼 이전까지의 노동이주여성으로서의 인생진행 과정에서는 성중립적 젠더를 부분적으로 행했고, 결혼 이후에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경우와 가정에만 전념한 경우에 따라 성중립적 젠더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갔거나, 성분리적 젠더를 재구성하여 고착화한 것으로 재현되었는데, 이는 노동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도 이주 시점에서의 위치에 구애 없이 직업노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시키는 성평등적 다문화복지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과 가정의 양립 생활은 본 이주여성들의 경우, 특히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주국의 유연한 근무제도 및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위탁가정으로 대변되는 사회화된 돌봄서비스 등 공식적인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음을 포착할 수 있었던 바,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인 돌봄자원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된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나 사회화된 돌봄서비스에 기초한 성평등적인 다문화복지실천이 특히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7)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자성에 주목한 유은주(2010)의 논문은 이주여성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주여성의 차연의 주체성을 이해한 '초국가적 사회복지실천(Transnationale Sozialarbeit)'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가정을 양립한 노동이주여성들의 경우,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성성이나 여성성이 중심인 모성정체성 혹은 여성정체성에 고착되기보다는, 모성성과 여성성, 자기성 등이 접합된 차연의 주체성을 구성하고 있었고, 이주국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자성의 주체성인 차연의 주체성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동이주여성들을 포함한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이주가정이나 이주국사회에서 타자들과 동질화하는 동일성의 정체성이 아닌, 이러한 타자들과의 차이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자적인 차연의 주체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국가적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주자들의 이주국사회로의 일 방향적인 동화주의적 적응(Assimilation)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문화복지실천(문경희, 2006; 이수자, 2006; 윤인진, 2008; 이용재, 2010; 최종렬, 2010)에는, 이주자들과 이주국사회 간 양 방향적인 조절주의적 적응(Akkulturation)을 지원하는 다문화복지실천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주여성 당사자의 내부자적 입장을 중시하는 '당사자 중심적 사회복지실천(Betroffenenorientierte Sozialarbeit)'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인 노동이주여성들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도출한 젠더와 관련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주의 젠더화 현상을 당사자적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사회복지 이론가와 실천가의 외부자적 관점에 근거한 전문가 중심적 사회복지실천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당사자 중심적 사회복지실천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주도형의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사회복지가 주를 이루는 우리의 실천현장(문경희, 2006; 양영자, 2011)에는, 이주여성들 자신들로부터 출발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from below)'²⁸⁾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젠더의 구성과정에 주목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젠더관계에 집중된 이주의 젠더화 관련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한 이주의 젠더화 관련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시각'에서 접근한 편향성을 노정했던 바, 젠더관계나 젠더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인 '이주남성들의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8)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Smith and Guarnizo, 1998)에 근거한 개념(문경희, 2006: 68)으로서, 이주민들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주도의 다문화주의'(윤인진, 2008)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는 이주자 간의 계층분화와 차별화를 가속화시키는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from above)'와는 대비되는 정책이자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송금과 편지, 전화, 친인척 초청, 위성방송 등을 통해 출신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주국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주자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초국가적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고,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above)'는 초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글로벌시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발전되며, 자유로운 국제적 이주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다(Smith and Guarnizo, 1998; 양영자, 2011a: 319-329; 2011b: 188).

참고문헌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
- 김애령. 2010. “‘여자 되기’에서 ‘젠더 하기’로”. 『한국여성철학』 13: 23-51.
- 김영옥.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통권 제 70호): 10-103.
- 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121-155.
- 김현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3): 145-174.
- 김혜경. 2007.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60년대 산업화 이후 친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7(2): 37-82.
- 나병철 역. 2002. 문화의 위치. H. K. Bhabha.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서울: 소명출판사.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 양영자. 2009. “후기노인들의 역사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3): 255-281.
- 양영자. 2010. “재독한인1세대 여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323-351.
- 양영자. 2011a.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생애사적 사례이해’”. 『한국사회복지학』 63(1): 317-342.
- 양영자. 2011b. “결혼이주여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생애사적 재구성”. 『비판사회정책』 33: 141-194.
- 유은주. 2010. “‘내가 시집을 온 건가, 일을 하러 온 건가’ -여성결혼이주자의 노동자성 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10(1): 199-245.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수자. 2006.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화혼성성 -재독 한인여성과 재한 외국인여성의 문화적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191-228.
- 이용재. 2010.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제 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3(1): 131-173.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임운택. 2006. “글로벌 젠더정치: INGO와 글로벌 거버넌스”. 『젠더와 사회』 22(1): 121-144.
- 장상수. 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 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 40(1): 127-156.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1109-1211.
- 진양명숙. 2007.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계급과 젠더 -1970-19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445- 485.
- 최민식. 2011. “리피르의 ”자기성”과 ”자기에”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8: 163-190.
- 최순. 1983. “韓國人의 初婚年齡 Pattern의 變動에 관한 人口學的 研究”. 『한국인구학』 6(1): 3-42.
- 최종렬. 2010.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사회 이론』 봄/여름: 229-284.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1-37.
- Butler, J. 2004. *Undoing Gender*. New York: Routledge.
- Constable, N. 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Pen Pals, Virtual Ethnography, and "Mail Order"Marri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 Beauvoir, S. 1992. *Das andere Geschlecht. Sitte und Sexus der Frau*. Hamburg: Rowohlt.
- Freeman, C. 2005. "Marrying Up and Marrying Down: The Paradoxes of Marital Mobility for Chosonjok Brides in South Korea." pp. 80-100. i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edited by N. Constabl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 and emotional surplus value." pp. 130-146. in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edited by W. Hutton and A. Giddens. London: Jonathan Cape.
- Kaiser, M. 2006. "Die Plurilokalen Lebensprojekte der Russlanddeutschen im Lichte neuer sozialwissenschaftlicher Konzepte." pp. 19-59. in *Zuhause fremd. Russlanddeutsche zwischen Russland und Deutschland*, edited by S. Ipsen-Peitzmeier and M. Kaiser. Bielefeld: transcript Verlag.
- Kerner, I. 2007. "Konstruktion und Dekonstruktion von Geschlecht. Perspektiven für einen neuen Feminismus." www.gender-politik-online.de 1-25.
-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ssen, S. 2000. "Women's Burden: Counter-geographies of Globaliz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Survival."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2): 503-524.

- Schütze, F. 1983. "Biographieforschung und narratives Interview." *Neue Praxis* (13): 283-293.
- Schütze, F.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pp. 78-117. in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 edited by M. Kohli and G. Robert. Stuttgart: Metzler.
- Schütze, F. 2006. "Verlaufskurven des Erleidens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interpretativen Soziologie." pp. 206-237. in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phieforschung*, edited by H.-H. Krüger and W. Marotzki. Wiesbaden: VS Verlag Sozialwissenschaften.
- Smith, M. P. and L.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Thai, H. G. 2005. "Clashing Dreams in the Vietnamese Diaspora: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pp. 145-165. i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edited by N. Constabl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von Felden, H. 2003. "Biographische und ethnomethodologische Forschung als Analyseinstrument für die Konstruktion von Geschlecht." *Zeitschrift für qualitative Bildungs-, Beratungs-, und Sozialforschung* 4(2): 261-280.
- Yeoh, B. and K. Willis. 2005. "Singaporeans in China: transnational women elites and the negotiation of gendered identities." *Geoforum* 36: 211-222.
- Zarembka, J. M. 2002. "America's dirty work: migrant maids and modern-day slavery." pp. 142-153. in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edited by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Construction Process of Gender in the Biographies of Migrant Women

-Based on the Biographies of the Korean female Migrant Workers in Germany-

Yang, Yeung-Ja
(Kyungnam University)

The current research intends to analys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gender in the biographies of migrant women. Ten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s with Korean female migrant workers in Germany were conduct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ascer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Schütze's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 The genders in their biographies were constructed similar before their marriage, but different after their marriage according to the work-family balanced type and the family centered type. Before their migration the 'process of life' as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female workers showed that both types had partially deconstructed a sex-segregated gender. The process of life as female migrant workers after their migration showed that both types had partially constructed a sex-neutral gender. The process of life after their marriage exhibited that the former strengthened and strengthens a sex-neutral gender in a double position as female migrant workers and female marriage migrants, but the latter reconstructed a sex-segregated gender again and intensifies this in a process of tim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work practice were addressed, which emerged from the understanding on the gender in the biographies of migrant women.

Key words: migrant women, female migrant worker, feminization of migration, gender, Korean female migrant Worker in Germany, biography, biography research

[논문 접수일 : 12. 02. 29, 심사일 : 12. 03. 23, 게재 확정일 : 12. 04. 25]